『더 나은 · 더 행복한 제주』를 위한
실용적 정책 연구기관

2025년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 제주연구원 임직원 홍콩, 심천, 마카오 공무국외연수 -

2025. 2.

JRI 제주연구원

목 차

Ⅰ. 출장목적 ····· 1

Ⅱ. 출장개요 ····· 1

Ⅲ. 방문 국가 주요 현황 ····· 3

Ⅳ. 기관 방문 주요 내용 ····· 13

Ⅴ. 정책 제안 ····· 44

제주연구원 임직원 홍콩, 심천, 마카오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Ⅰ 출장목적

○ 과거 홍콩은 자유시장 경제, 효율적인 행정,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경제 허브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하였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당시 주요 롤모델로 삼았음

○ 그러나 최근 홍콩은 국가보안법 시행 등 중국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시사함

○ 이에 이번 출장을 통해 현재 홍콩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주가 직면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마카오·심천·홍콩의 도시계획과 관광 전략을 분석하여, 제주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출장개요

○ 기간 : 2025. 1. 13(월) ~ 2025. 1. 17(금), (3박 5일)

○ 방문국가 : 마카오, 심천, 홍콩

○ 연수단 : 총 13명(명단 붙임)

○ 방문기관 : 마카오 역사지구(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심천 도시계획박물

관, 심천민속촌, 서구룡 문화지구(시취센터, 엠플러스, 고궁박물관),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홍콩한인상공회, 홍콩해양공원, 홍콩 교통/이동수단 체험

○ 출장 일정

구분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주요 내용	비고
1.13(월)	제주	홍콩, 마카오	이동	- 제주 출발 → 홍콩 도착 (07:55 ~ 10:20)	
			마카오 역사지구	[홍콩 → 마카오 이동] - 마카오 역사지구(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14(화)	심천, 홍콩		도시계획 박물관 등	- 심천 도시계획박물관 - 심천민속촌	
1.15(수)	홍콩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등	- 서구룡 문화지구 · 시취센터 · 엠플러스 · 고궁박물관 -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1.16(목)	홍콩		홍콩한인 상공회 등	- 홍콩한인상공회 - 홍콩해양공원 - 홍콩 교통/이동수단 체험 · 피크트램,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스타페리, 2층 버스	
1.17(금)	홍콩	제주	이동	- 홍콩 출발 → 제주 도착 (02:45 ~ 06:40)	

Ⅲ 방문 국가 주요 현황

1. 마카오

□ 개요

❍ 마카오는 남중국해 주장 삼각주 서쪽에 위치에 위치한 특별행정구로, 면적은 약 32.9㎢에 불과하지만 아시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

❍ 1999년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오랜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중국의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음. 현재 마카오는 관광과 카지노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을 이루고 있음

❍ 마카오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카지노 산업 합법화된 지역으로,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마카오에는 세계적인 카지노와 호텔 리조트가 밀집해 있음

❍ 지정학적으로 마카오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홍콩과의 근접성 덕분에 국제 무역과 관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2018년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가 개통된 이후, 육로를 통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일반 현황

❍ 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위치 : 남중국해 주장 삼각주 서쪽, 홍콩과 인접

❍ 면적 : 약 32.9㎢ (제주도의 약 1.8%)

❍ 인구 : 약 71만 명 (2024년 기준)

❍ 민족 : 한족(주류), 포르투갈계 등

❍ 언어 : 중국어(광둥어, 표준중국어), 포르투갈어 (공용어)

❍ 정부 형태 : 중국 특별행정구, 고도의 자치권 보유

❍ 기후 : 아열대성 기후로 고온다습하며 여름철 강우량이 많음

❍ 시차 : 한국보다 1시간 늦음

❍ 정치

- 정부 형태 : 중국 특별행정구로 행정장관이 통치, 중국 중앙정부가 외교·국방 담당
- 정치 구조 :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 아래에서 고도의 자치권 보유, 행정장관은 마카오 선거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 중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승인
- 법과 질서 : 중국 본토와는 다른 법 체계를 유지하며, 사회 질서가 안정적이고 치안이 양호함

❍ 경제

- GDP : 약 539억$(2023)
- 경제 체제 : 개방형 경제, 관광 및 서비스업 중심
- 주요 산업 : 카지노 및 관광 산업, 금융 서비스, 건설업, 소매업
- 소득 수준 : 1인당 GDP 약 69,430$(2023),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 무역 :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자제품, 섬유제품, 기계류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은 소비재, 식품, 원유 등이 있음

❍ 사회문화

- 사회 : 중국 문화와 포르투갈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역사적 배경
- 종교 : 불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톨릭, 도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
- 교육 : 마카오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시스템 구축

❍ 주요 관광지 및 랜드마크

- 세인트 폴 성당 유적 : 마카오를 대표하는 역사적 랜드마크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세나도 광장 : 마카오의 대표적인 중심 광장, 유럽풍 건축물과 포석 거리가 특징
- 마카오 타워 : 338m 높이의 전망대와 번지점프, 스카이워크 등으로 유명
- 코타이 스트립 : 대형 카지노 호텔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밀집된 지역

□ 한국과 마카오의 관계

❍ 한국과 마카오의 외교관계는 한국이 포르투갈과 1961년 수교하면서 성립되었음. 이후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면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일부로서 교류

❍ 마카오는 한국의 중요한 관광 및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한국과 마카오 간 교역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주요 교역 품목은 전자제품, 화장품, 식료품 등

❍ 마카오 내 한국인은 약 400명(2024년 기준)이며, 한국 내 마카오 출신자는 소수이나, 관광과 유학을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마카오 방문객 수는 2019년 74만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만명을 기록함. 이에 반해, 마카오→한국 방

문객 수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었음

○ 양국은 관광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및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항공 노선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고 있음

2. 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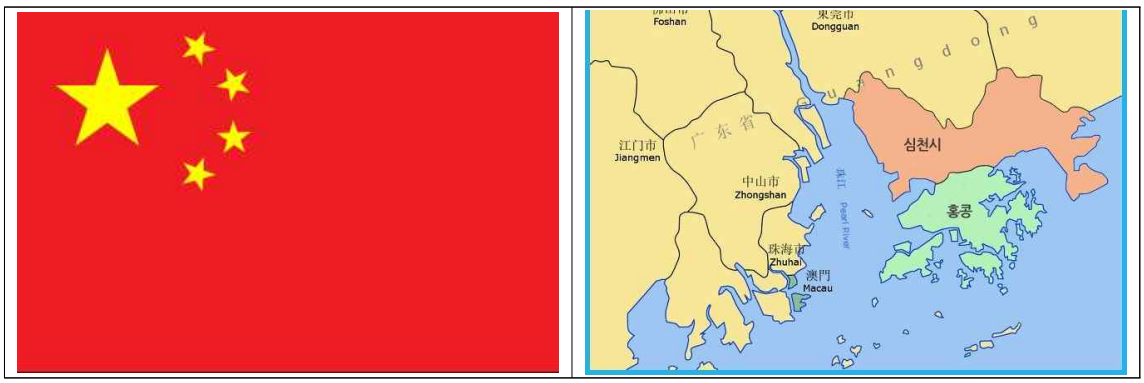
□ 개요

○ 심천은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대도시로, 홍콩과 맞닿아 있으며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 자리 잡음. 면적은 약 1,997㎢에 달하며, 중국 주요 도시 중에서도 높은 인구 밀도를 기록하고 있음

○ 1980년 8월 26일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심천은 세계적인 제조업과 첨단 기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함. 특히, 화웨이, 텐센트, BYD 등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IT·반도체·AI·스마트 제조업 등 혁신 산업이 집약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 심천은 금융과 무역 중심지로도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와 홍콩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Qianhai(전해) 자유무역구를 중심으로 금융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콩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음

○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도 뛰어난 연결성을 자랑하며, 광저우-심천-홍콩 고속철도와 심천 국제공항을 통해 글로벌 접근성이 높음. 또한, 최근에는 2035년까지 '세계 선도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스마트 인프라, 친환경 도시 계획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일반 현황

❍ 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심천시 (Shenzhen, People's Republic of China)

❍ 위치 : 중국 광둥성 남부, 홍콩과 접경

❍ 면적 : 약 1,997㎢ (제주도의 약 1.1배)

❍ 인구 : 약 1,756만 명 (2020년 기준)

❍ 민족 : 한족(주류), 소수민족 및 외국인 거주자 증가

❍ 언어 : 표준중국어(보통화), 광둥어(일부 지역)

❍ 정부 형태 : 중국 지방정부(부성급 도시)로 중앙정부 직속 관리

❍ 기후 : 아열대 몬순 기후로 고온다습하며 여름철 강우량이 많음

❍ 시차 : 한국보다 1시간 늦음

❍ 정치

- 정부 형태 : 부성급 도시로서 중국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음
- 정치 구조 : 시 정부는 공산당이 지도하며, 시장(市長)은 중앙정부가 임명
- 법과 질서 : 중국 본토 법 체계 적용, 치안이 양호하며 사회 질서 안정

❍ 경제

- GDP : 약 482억$(2023)
- 경제 체제 : 개방형 경제, 경제특구로서 외국인 투자 유치 활발

- 주요 산업 : IT 및 첨단기술(화웨이, 텐센트, DJI 등), 전자·반도체, 금융, 스마트 제조업, 무역 및 물류
- 소득 수준 : 1인당 GDP 약 12,621$(2023)
- 무역 :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자제품, 통신기기, 반도체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은 원자재, 첨단 부품, 고급 소비재 등이 있음

❍ 사회문화

- 사회 : 개방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다양한 인구가 유입됨
- 종교 : 불교, 도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
- 교육 : 칭화대 심천캠퍼스, 심천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이 있으며, 기술 및 연구 중심의 교육 시스템 구축

❍ 주요 관광지 및 랜드마크

- 화강베이(华强北) : 중국 최대 전자제품 시장이 위치한 지역
- 세계지창(世界之窗, Window of the World) : 전 세계 유명 랜드마크를 축소해 재현한 테마파크
- 금수중화(锦绣中华, Splendid China) : 중국의 주요 문화유산과 전통 건축을 축소 모형으로 재현한 테마파크

□ 한국과 심천의 관계

❍ 한국과 심천의 교류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심천이 중국의 경제특구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경제·무역·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음

❍ 심천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 및 기술 협력 파트너로, 특히 반도체, 전자, 정보통신,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심천에 연구개발(R&D) 및 생산 거점을 운영

하고 있으며, 중국 내수 시장 및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한국과 심천 간 교역 규모는 광둥성 내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심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 주요 교역 품목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이 있으며,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소비재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심천 내에는 한국계인이 약 2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기업 주재원, 연구원, 스타트업 창업자 및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음. 반면, 한국 내 심천 출신자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유학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심천 방문객 수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음. 다만, 심천은 중국 내에서도 IT 및 창업 허브로 유명해, 비즈니스 출장 및 박람회 참가 목적으로 한국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반면, 심천→한국 방문객 수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국 관광 및 쇼핑,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 많음

○ 양측은 경제·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한중 기업 교류 행사, 창업 및 스타트업 포럼, 문화 홍보 이벤트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항공 노선(인천-심천, 김포-심천 등) 확대를 통해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고 있음

3. 홍콩

□ 개요

○ 홍콩은 중국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특별행정구로, 면적은 약 1,106㎢이며, 아시아의 주요 금융 및 무역 중심지 중 하나임

○ 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 홍콩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

았으며, 현재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음

○ 홍콩의 경제는 자유 무역, 낮은 세율,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 무역, 물류, 관광 산업이 주요 경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정학적으로 홍콩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 본토와의 근접성 덕분에 국제 무역과 관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의 개통으로 육로를 통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일반 현황

○ 명칭: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위치: 중국 남동부 해안, 주강 삼각주 동쪽에 위치하며 마카오와 인접

○ 면적: 약 1,106㎢ (제주도의 약 60%)

○ 인구: 약 778만 명 (2024년 기준)

○ 민족: 한족(91% 이상)

○ 언어: 중국어(광둥어, 표준중국어), 영어 (공용어)

○ 정부 형태: 중국 특별행정구로 고도의 자치권 보유

❍ 기후: 아열대 몬순 기후로, 여름철 고온다습하며 강우량이 많음

❍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늦음

❍ 정치

- 정부 형태: 중국 특별행정구로 행정장관이 통치하며, 중국 중앙정부가 외교·국방을 담당
- 정치 구조: '일국양제' 원칙 아래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하며, 행정장관은 선거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 중 중국 중앙정부가 임명
- 법과 질서: 중국 본토와는 다른 법 체계를 유지하며, 사회 질서가 안정적이고 치안이 양호함. 다만, 2020년 국가보안법의 도입으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존재하였음

❍ 경제

- GDP: 약 4,220억 달러 (2024년 기준)
- 경제 체제: 개방형 경제로, 자유 무역과 서비스업 중심
- 주요 산업: 금융 서비스, 무역, 물류, 관광 산업
- 소득 수준: 1인당 GDP 약 55,612달러 (2024년 기준)
- 무역: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자제품, 기계류, 귀금속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제품 등이 있음

❍ 사회문화

- 사회: 중국 문화와 영국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역사적 배경
- 종교: 다신교 사회로서 연중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림
- 교육: 홍콩대학교, 홍콩중문대학교 등 세계적인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시스템 구축

❍ 주요 관광지 및 랜드마크

- 빅토리아 피크: 홍콩 섬의 최고봉으로, 도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

표적인 관광지

- 침사추이: 구룡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쇼핑과 문화의 중심지
- 홍콩 디즈니랜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테마파크
- 빅토리아 하버: 홍콩 섬과 구룡반도를 나누는 항구로, 야경이 유명함

□ 한국과 홍콩의 관계

❍ 한국과 홍콩의 외교관계는 1949년 11월 한국이 홍콩에 주홍콩 총영사관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경제 및 문화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홍콩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 및 금융 협력 파트너로,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금융, 무역, 물류, 관광 산업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과 홍콩 간 교역 규모는 아시아 내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 품목으로는 전자제품, 반도체, 화장품, 의류, 식료품 등이 있음. 2022년 기준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약 295억 달러임

❍ 홍콩 내 한국인은 약 16,000명(2022년 기준)이며, 주로 금융, 무역,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

❍ 한국→홍콩 방문객 수는 2019년 약 148만 명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약 8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함. 이에 반해, 홍콩→한국 방문객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부족하지만,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양국은 관광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및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항공 노선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고 있음. 특히 K-POP, 한국 드라마,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과 홍콩 간 문화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Ⅳ 기관 방문 주요 내용

1. 마카오 역사지구(Centro Histórico de Macau)

□ 개요

○ 일자 : 2025년 1월 13일(월)

○ 참석자 : 연수단(13명)

○ 주소 : Calcada de São Paulo, Macau 등

○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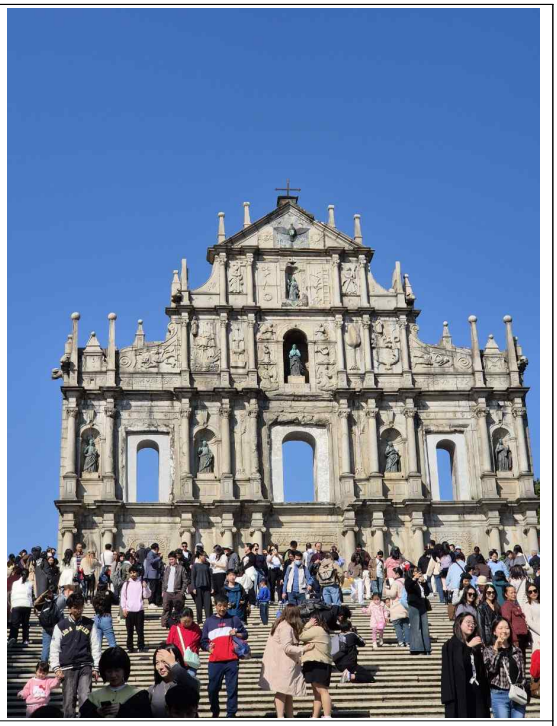
□ 내용

○ 세인트 폴 성당 유적(Ruins of St. Paul's)은 마카오를 대표하는 역사적 건축물로, 16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성당의 일부가 남아 있는 유적임. 본래 복합 건축물이었으나, 19세기 대화재로 인해 대부분이 소실되었음

○ 현재는 바로크 양식의 정면 파사드와 계단이 보존되어 있으며, 라틴어, 중국어, 일본어로 새겨진 성경 구절과 다양한 기독교적 상징이 조각되어 있

어, 당시 동서양 문화 교류의 산물로서의 가치를 지님

❍ 세인트 폴 성당 유적은 마카오의 식민지 역사와 동서양 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었음

<세인트 폴 성당 유적>

❍ 성 도미니크 성당(St. Dominic's Church)은 마카오의 대표적인 가톨릭 성당으로, 16세기 도미니크회 수도사들에 의해 건립된 역사적인 건축물로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가톨릭 성당 중 하나로,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역사적 사건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음

❍ 포르투갈식 바로크 양식과 중국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노란색 외벽과 초록색 창문, 정교한 목조 천장이 특징임. 내부에는 아름다운 제단과 정교한 종교 회화가 장식되어 있으며, 성당의 종탑에는 오래된 청동 종이 보존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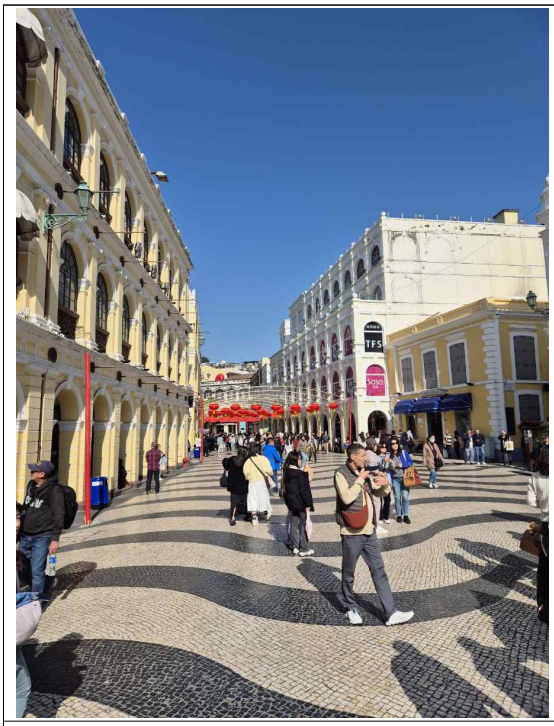



<성 도미니크 성당>

○ 세나도 광장(Senado Square)은 마카오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역사적 광장으로, 포르투갈 식민지 시기부터 행정 및 상업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공간임. 16세기부터 마카오의 주요 공공 행사와 축제가 개최된 장소로, 정치적·문화적·사회적 기능을 모두 갖춘 역사적 유산임. 광장의 명칭은 포르투갈의 행정 기관인 '세나도(Leal Senado)'에서 유래하였음

○ 바닥은 포르투갈식 파도 모양의 모자이크 타일로 포장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유럽풍 건축물이 늘어서 있어 식민지 시대의 건축적 특징을 보여줌. 광장 주변에는 정부 청사, 우체국 등이 위치해 있음

○ 세나도 광장은 현재도 각종 문화 행사와 축제가 열리는 관광 명소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음. 또한, 광장 주변에는 전통적인 마카오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과 상점들이 밀집해 있었음





<세나도 광장>

□ 시사점

○ 마카오는 동서양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도시로, 세인트 폴 성당 유적, 성 도미니크 성당, 세나도 광장은 각각 역사적, 문화적, 관광적 가치를 지니며, 제주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과 도시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마카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인트 폴 성당 유적과 성 도미니크 성당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제주는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둘째, 문화와 관광의 조화로운 접목 측면에서 마카오는 세나도 광장을 중심으로 전통 건축물과 현대적 상업 공간이 조화를 이루며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경험과 쇼핑, 문화 체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음. 제주는 전통적인 돌담이 있는 마을, 목관아 등 역사적 자원을 현대적 관광 요소와 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보행 친화적 도시 조성 측면에서 마카오는 세나도 광장과 그 주변을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제주는 올레길 등 자연 친화적 보행로가 있지만, 도심 내 보행 공간 확대 및 역사 유적과 연계된 도보 관광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넷째, 야간 경관 및 문화 행사 활성화 측면에서 마카오는 세나도 광장을 중심으로 한 야간 조명 및 문화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음. 제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외 공연, 미디어 파사드 등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심천 도시계획박물관(Museum of Urban Planning, Shenzhen)

□ 개요

○ 일자 : 2025년 1월 14일(화)

○ 참석자 : 연수단(13명)

○ 주소 : 184 Fuzhong Rd, Lianhua Street, Futian District, Shenzhen

○ 위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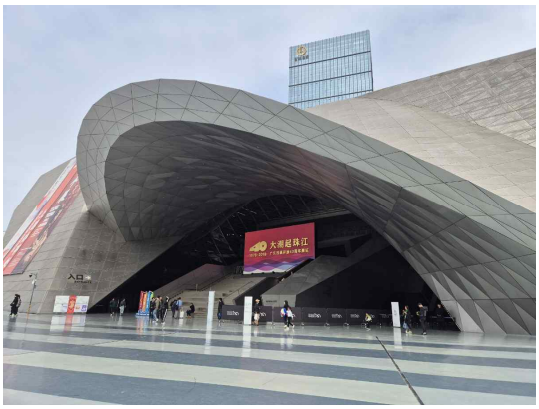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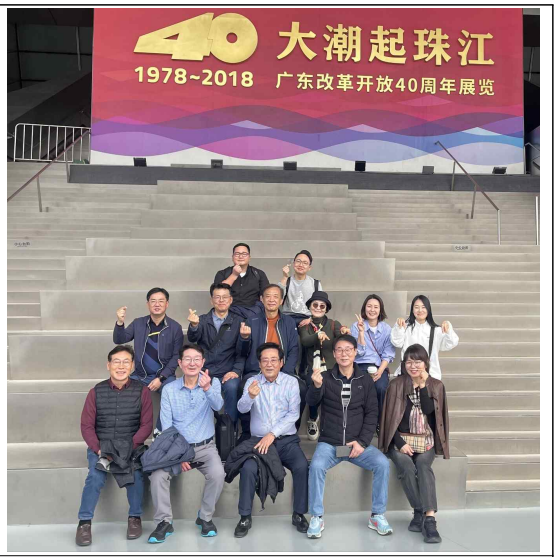
□ 내용

○ 심천 도시계획박물관은 중국 심천의 도시 개발 과정과 미래 발전 전략을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심천이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룬 배경과 도시 설계 원칙을 전시하고 있음

○ 박물관에는 심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도시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형 도시 모형이 전시되어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물이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도시 계획의 핵심 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심천 도시계획박물관은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개발 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대 도시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스마트 시티, 친환경 도시 설계, 교통 및 인프라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천의 성공 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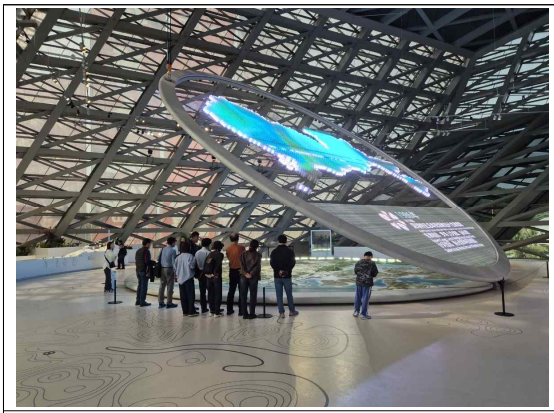
<심천 도시계획박물관>

○ 생태문명 전시에서는 심천이 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음. 심천은 삼림 도시, 해안 도시, 공원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연과 도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설계하였음

❍ 또한, 심천의 생태문명 전시는 친환경 건축 기술,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도시 녹지 비율 증가 등의 구체적 정책을 소개하며, 도시 성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었음

❍ 해양문명 전시는 심천이 역사적으로 바다를 통해 발전해 온 도시임을 강조하며, 해양 무역과 소금 산업을 통해 형성된 도시의 정체성과 개방성을 보여주었음

❍ 심천은 현재도 해안 보호와 해양 생태 보존을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 경제 발전과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해양문명 전시에서는 스마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해양 관광 자원의 친환경적 활용과 같은 현대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해양 경제와 환경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음







<심천 생태·해양 문명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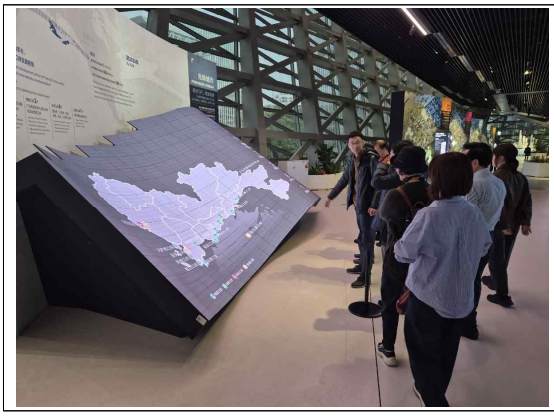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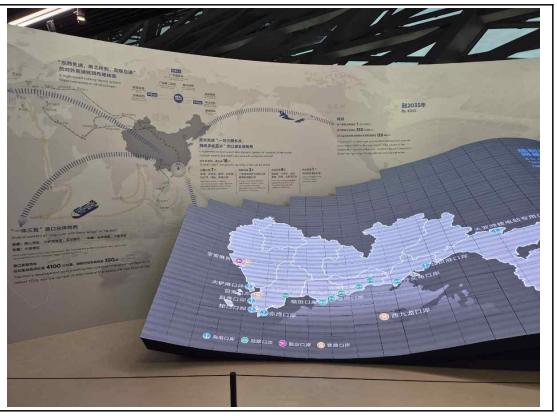
❍ 공공서비스 부문 전시에서는 심천이 포용적이고 고품질의 지속 가능한 도시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과 전략을 다루고 있었음. 특히 ‘15분 생활권’ 개념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균형 발전과 도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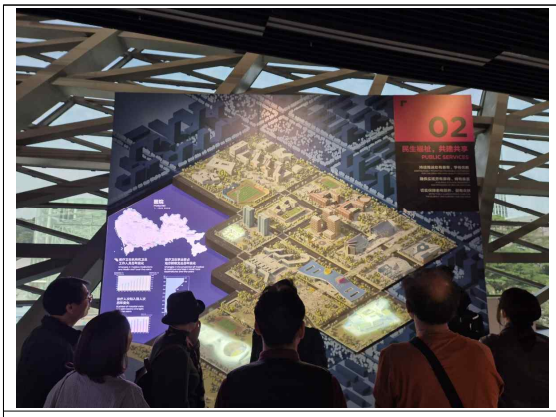
❍ 주택계획 전시에서는 심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인 주택 공급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음. 특히 국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거주 환경 조성 방안과 베이 지역 내 주택 공동 개발 전략을 강조하였음

❍ 교통시스템 전시는 2025년과 2035년을 목표로 심천이 스마트, 저탄소, 안전한 교통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음.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통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교통망 구축을 핵심으로 삼고 있었음

❍ 이를 위해 자율주행 시스템, 친환경 대중교통, 지능형 교통 관리 시스템 등의 기술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교통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산과 바다가 연결된 녹색 도시’ 전시는 심천이 ‘공원이 있는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 친화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었음. 2035년까지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수를 증가시키고 공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심천 도시계획 관람>

□ 시사점

○ 심천과 제주는 도시 계획과 개발 측면에서 몇 가지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심천 도시계획박물관에서 제시한 사례는 제주의 도시 계획에 시사점을 제공함

○ 첫째, 심천은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었음. 이는 환경 보존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제주에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제주 역시 녹지 공간 확대, 해양 환경 보호, 친환경 건축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 둘째, 심천은 '15분 생활권' 개념을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음. 제주는 현재 15분도시를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제주 또한 심천과 같이 도심과 농어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셋째, 심천은 다층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었음. 최근 제주의 인구는 유출이 늘고 있지만, 주거에 대한 문제는 여전한 것이 현실임. 심천과 같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장기적 관점의 주택 정책 수립, 스마트 주택 개발 등의 전

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심천은 자율주행, 친환경 대중교통, 지능형 교통 관리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음. 제주 역시 전기차 및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지능형 교통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교통 환경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3. 심천민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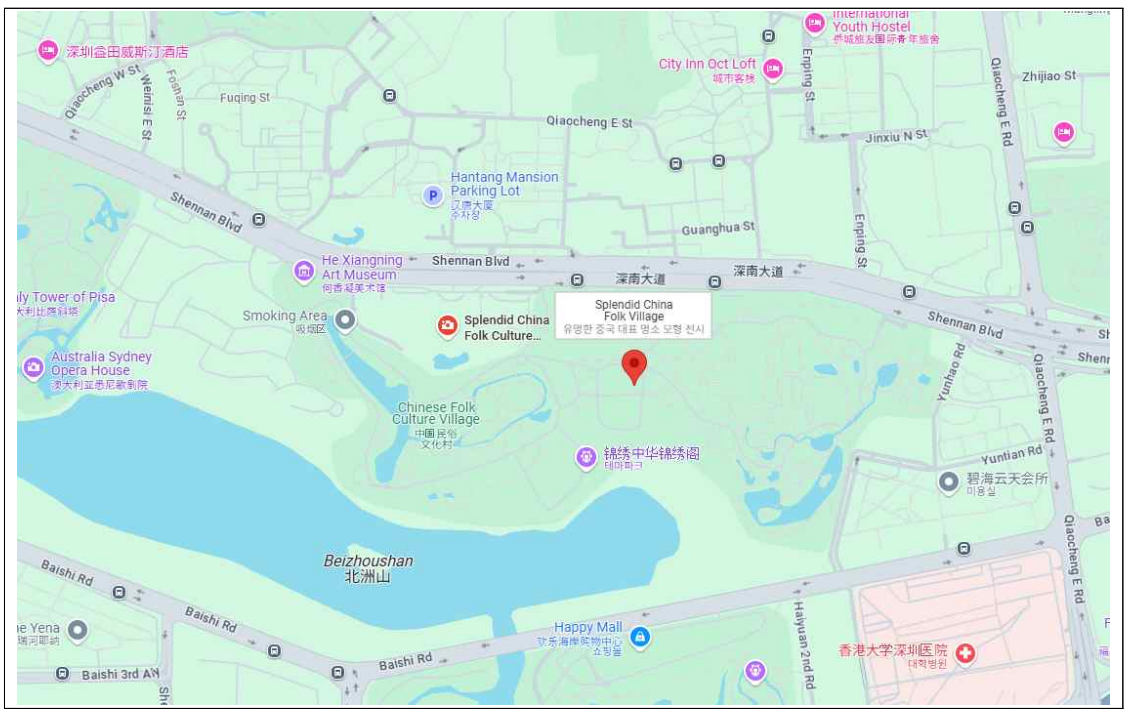
□ 개요

○ 일자 : 2025년 1월 14일(화)

○ 참석자 : 연수단(13명)

○ 주소 : Overseas Chinese Town, West End, Middle Section of Shennan Avenue, Nanshan District, Shenzhen

○ 위치 :



□ 내용

○ 심천민속촌의 정식명칭은 금수중화민속촌(錦綉中華民俗村)으로 심천의 대표적인 문화 테마파크임. 중국의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문화를 압축적으로 재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민속촌은 '금수중화(锦绣中华)'와 '중화민속촌(中华民俗村)' 두 개의 주요 테마 구역으로 구성되어, 중국의 역사적 유산과 민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금수중화(锦绣中华) 구역은 중국 전역의 주요 역사적 명소와 건축물을 축소 모형으로 재현한 공간으로, 만리장성, 진시황릉 병마용, 포탈라궁, 이화원 등 80여 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정교하게 축소되어 배치되어 있음. 이 구역은 중국의 광활한 지리적 특성과 더불어 역사적 유산의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중국 전역의 문화적 유산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각 모형은 실제 건축물의 비율과 세부 디자인을 면밀하게 반영하여 제작되어있어, 중국의 건축미와 조경 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음





<금수중화(锦绣中华) 구역>

❍ 중화민속촌(中华民俗村) 구역은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의 전통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공간으로, 전통 가옥, 생활 방식, 공예, 복식, 민속 공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되었음. 각 민족의 전통 마을이 재현되어 있으며, 묘족, 장족, 티베트족 등의 전통 건축물과 문화 요소들을 볼 수 있었음

❍ 금수중화민속촌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중국의 역사적, 민속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문화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음. 또한,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민족 공존의 특징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형성되어 실제 현장에는 많은 중국의 학생들이 방문하여 중국의 역사를 학습하고 체험하고 있었음. 이러한 모습은 금수중화민속촌은 중국 전통 문화의 보전과 현대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중화민속촌(中华民俗村) 구역>

□ 시사점

❍ 심천민속촌은 제주가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 첫째, 심천민속촌은 중국 전역의 문화유산을 한 공간에서 집약적으로 재현하여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이는 제주가 세계자연유산과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관광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을 시사함. 예를 들어, 제주목관아, 돌문화공원, 제주 민속촌 등 기존의 관광 자원을 보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야 함

○ 둘째, 심천민속촌은 56개 소수민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제주는 제주어, 해녀 문화 등 독자적인 문화를 지닌 지역으로, 이러한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관광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해녀체험 전시관 운영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셋째, 심천민속촌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학생들이 방문하여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음. 최근 제주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수학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보다 깊이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주 자연 생태, 해녀 문화, 4·3 사건 등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함

4. 서구룡 문화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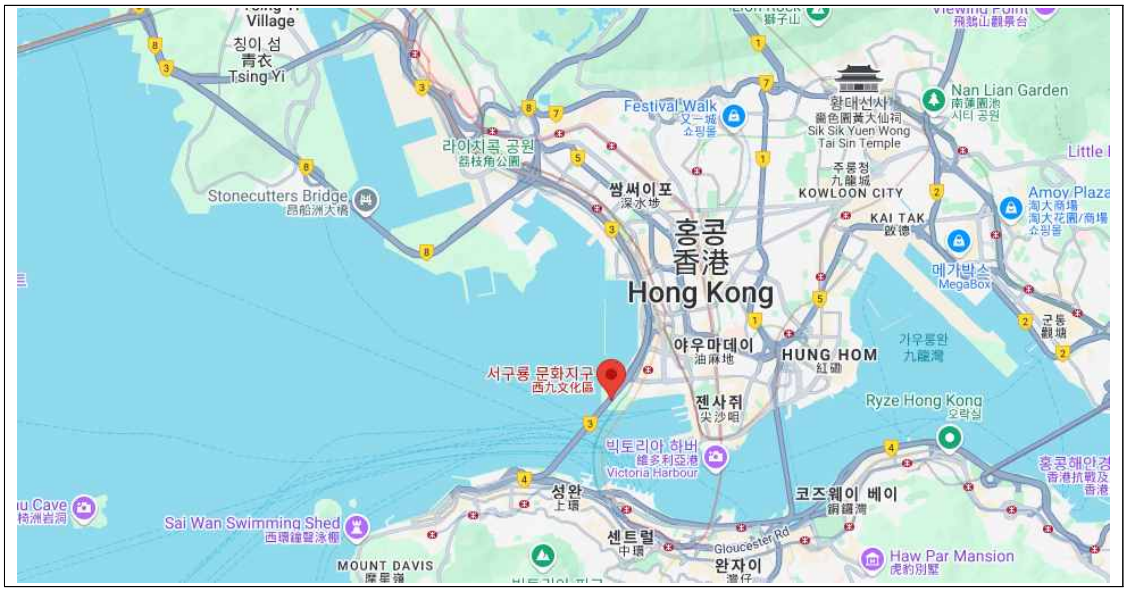
□ 개요

○ 일시 : 2025년 1월 15일(수)

○ 참석자 : 연수단(13명)

○ 주소 :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 위치 :



□ 내용

○ 서구룡 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는 홍콩을 대표하는 대규모 문화 예술 단지로,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 예술 공간과 박물관, 전시장이 집약된 복합 문화 공간임. 서구룡 문화지구 프로젝트는 홍콩의 문화 예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적 문화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추진되었음

○ 서구룡 문화지구에는 현대 미술과 전통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설이 위치해 있음. 대표적으로 M+ 미술관, 홍콩 고궁박물관, 자유공원 및 시취센터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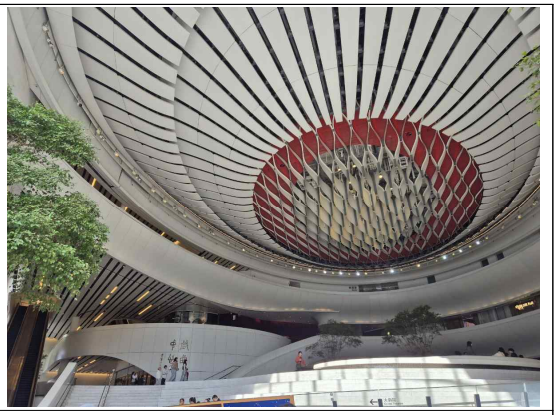
○ 서구룡 문화지구로 인하여 홍콩은 그동안 금융 중심지였던 이미지를 넘어 문화 예술 도시로 발전하고 있었음. 현대성과 전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제와 야외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시취(Xiqu)센터는 전통 중국 연극 공연 예술을 위한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중국의 희곡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목적에서 설립됨. 이곳은 경극을 비롯한 다양한 중국 전통 희곡 공연을 전문적으로 개최하는 장소로, 현

대적인 건축미와 전통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건축 디자인이 특징임

○ 시취 센터의 건축물은 중국 전통 극장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선형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주요 공연장은 1,000석 규모의 대극장과 다목적 소극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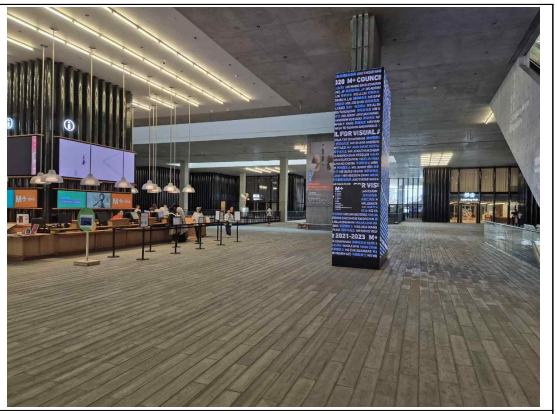
<시취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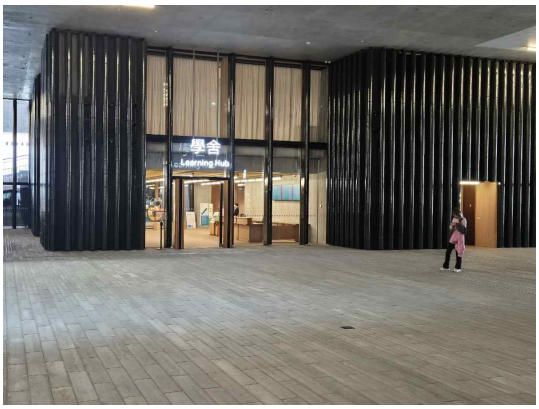
○ M+ 미술관은 현대 시각예술 박물관으로, 아시아 현대 미술을 중심으로 디자인, 건축, 영상, 뉴미디어 아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시 공간임.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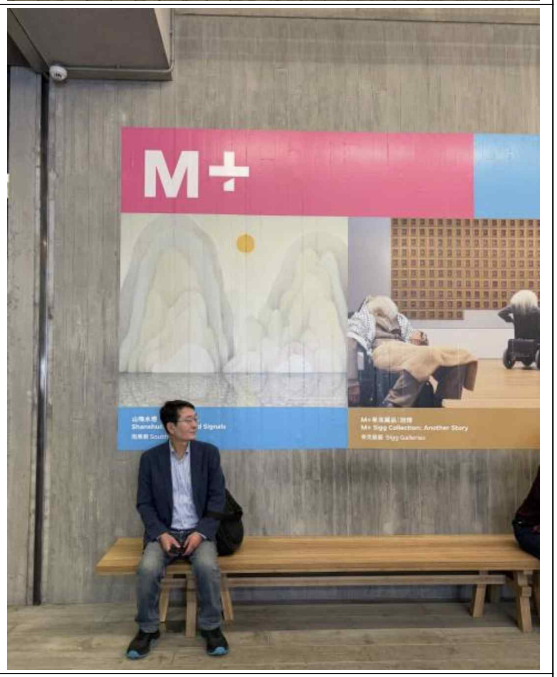
에 개관하였으며 아시아 최초의 글로벌 현대 미술관으로 평가받고 있음

❍ M+ 미술관은 65,000㎡ 규모의 대형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33개 갤러리, 교육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음. 건축 디자인은 스위스 건축사무소 헤르조그 & 드 뫼롱이 설계하였으며, 미니멀리즘적 구조와 LED 디지털 파사드를 결합하여 현대적인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임. M+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아시아 현대 문화의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음









<M+ 미술관>

❍ 2022년 개관한 홍콩 고궁박물관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다양한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었음. 자금성의 일부였던 고궁박물관의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대적인 건축 양식과 전통적인 중국 건축의 미가 어우러진 독특한 외관을 보이고 있었음

❍ 홍콩 고궁박물관은 총 7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도자기, 서예, 회화, 청동기, 옥기 등 다채로운 종류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었음. 전시된 유물들은 대부분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황실에서 사용하던 물품들로,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박물관 주변에 산책로와 조각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음



<홍콩 고궁박물관>

□ **시사점**

❍ 첫째, 서구룡 문화지구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 예술 공간, 박물관, 전시장을 집약하여 홍콩을 금융 중심지에서 문화 예술 허브로 발전시키고 있었음. 제주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독특한 지역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대적 문화 예술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도내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예술가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관광 상품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 둘째, 서구룡 문화지구는 전통 중국 연극을 위한 시취 센터와 현대 미술을 위한 M+ 미술관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음. 제주는 전통적인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저지리 예술인 마을, 제주현대미술관과 같이 현대적인 문화예술의 요소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음. 이러한 요소들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문화도시로서의 모습을 확립해야 함

❍ 셋째, 공공 문화공간과 자연 환경의 연계로 서구룡 문화지구는 박물관 주변에 산책로와 조각 공원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이 자연과 함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제주는 세계적인 자연경관을 보유한 지역으로, 문화 시설과 자연 공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할 필요 있음. 예를 들어, 제주 자연을 배경으로 한 야외 전시,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차별화된 문화 관광 자원을 조성해야 함

5.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 **개요**

❍ 일시 : 2025년 1월 15일(수)

❍ 참석자 : 연수단(13명). 문선옥 총괄, Sharnon Chan 마케팅 전무

❍ 주소 : Unit 2202-2203, 22/F., World Trade Centre, 280 Gloucester

Road, Causeway Bay, Hong Kong

❍ 위치 :



□ 내용

❍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홍콩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홍콩 시장의 특성과 관광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홍콩은 한국 인바운드 시장에서 제5위 규모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로, 2019년에는 약 69만 명의 홍콩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였음.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수가 급감하였으나, 2024년에는 2019년 대비 약 82%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홍콩 관광객 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이 주요 고객층이라는 점이며, 특히 20대 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뷰티, 패션, K-POP 등 젊은 여성층을 겨냥한 콘텐츠 마케팅이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경쟁국과의 비교에서 일본, 대만, 태국에 이어 한국이 4위에 해당하며, 특히 일본이 홍콩 관광객 유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일본은 한국보다 3배 이상 많은 홍콩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최근 '엔저'로 인해 일본 여행이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콩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이 필요함

❍ 홍콩에서는 방한 수학여행 및 MICE 관광(기업 인센티브 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9년 기준 방한 수학여행 단체는 약 3,596명, MICE 단체 관광객은 4,550명에 달했으며, 특히 IT 및 S.T.E.M. 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홍콩 수학여행 시장에서 인기가 높음

❍ 홍콩-제주 항공노선은 홍콩에서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홍콩 익스프레스(주 7편)와 제주항공(주 2편)이 운항 중이며, 탑승률은 87%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제주를 방문하는 승객 중 홍콩인이 51%를 차지하고 있어,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타깃 시장으로 분석됨

❍ 홍콩은 약 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해외여행 시장으로, 2019년 기준 항공 이용 해외여행자가 1,300만 명에 달하는 등 1인당 평균 2회 해외여행을 즐기는 여행 성향이 강한 시장임. 또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국가(2019년 기준 76%)로, 한 번 한국을 방문한 홍콩인들이 다시 찾는 경향이 높음

❍ 홍콩 관광 시장은 FIT(자유여행객, Free Independent Traveler) 중심으로, 개별 여행객의 비율이 88%에 달하며, 영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해외여행 경험이 풍부한 점이 특징임. 성수기는 부활절, 춘절, 크리스마스, 여름방학(8월) 등으로, 이 시기에 맞춘 방한 프로모션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됨

❍ 홍콩 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야간 관광 활성화와 같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홍콩은 빅토리아 하버에서 대규모 불꽃놀이, 심포니 오브 라이트 쇼, 드론쇼, 야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야간 관

광을 강화하고 있음. 한국도 야간 관광 콘텐츠 확대를 통해 홍콩 관광객의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50만 장의 무료 항공권을 배포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였으며, '아시아의 허브'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대형 국제 행사 및 포뮬러 원 대회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간담회>

□ 시사점

○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의 활동과 전략은 제주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었음

○ 첫째, 홍콩 관광객의 주요 특징은 여성이 핵심 고객층이며, 특히 20대 여성 관광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이에 따라, 한국은 뷰티, 패션, K-POP 등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제주 역시 해외 관광객의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K-콘텐츠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함

○ 둘째, 홍콩-제주 노선은 홍콩에서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핵심 경로로, 탑승률이 87%에 달할 만큼 수요가 높은 편임. 특히, 홍콩-제주 노선을 통해 방문하는 승객 중 홍콩인 비율이 51%에 달하는 점은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회 요소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홍콩 관광객을 겨냥한 프로모션 확대를 고려해야 함.

○ 셋째, 자유여행객(FIT) 중심 관광 인프라 개선 필요. 현장에 가족과 제주를 방문한 경험이 있던 홍콩 직원이 있었으며, 관광 중 가장 어려움 점으로 교통을 지적하였음. 홍콩 관광객의 88%가 자유여행객(FIT)이며, 이들은 영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해외여행 경험이 풍부함.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홍콩 자유여행객을 고려한 대중교통 연계성 개선, 다국어 서비스 확대, 개별 여행객을 위한 스마트 관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넷째, 홍콩은 빅토리아 하버의 대규모 불꽃놀이, 심포니 오브 라이트 쇼, 드론쇼, 야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야간 관광을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 제주 관광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사항 중 하나는 야간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임. 이에 야경 명소 개발, 야간 축제, 미디어 파사드 활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야간에도 관광을 즐기며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다섯째,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50만 장의 무료 항공권을 배포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시행하였음. 제주 역시 홍콩 시장을 겨냥한 SNS 홍보, 인플루언서 마케팅, 프로모션 이벤트, 항공사 및 여행사 협업 등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6. 홍콩한인상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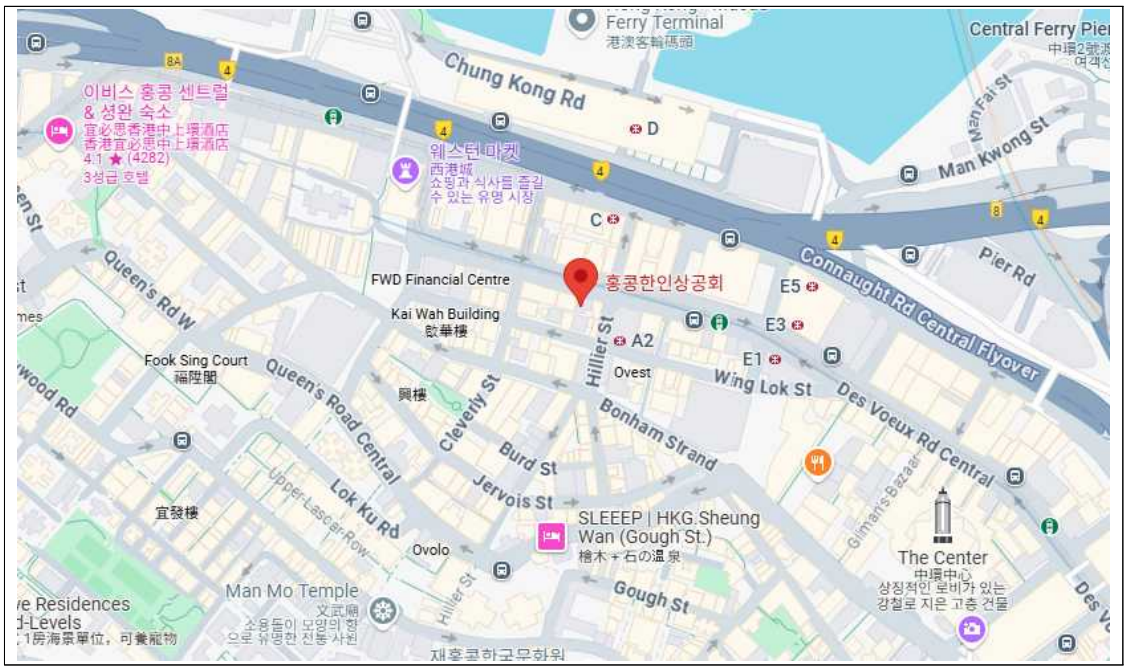
□ 개요

○ 일시 : 2025년 1월 16일(목)

○ 참석자 : 연수단(13명), 신성철 회장, 이종석 부회장, 김영수 사무총장

○ 주소 : Sheung Wan, Des Voeux Rd Central, 262, Yat Chau Building, 16th Floor

○ 위치 :



□ 내용

○ 홍콩한인상공회(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Hong Kong, KCCHK)는 한국 기업들의 홍콩 내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과 홍콩 간 경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1976년 7월 7일 설립된 기관임

○ 홍콩은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홍콩한인상공회는 한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홍콩 내 한인 경제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과 홍콩 간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

○ 2023년 9월 기준, 241개 기업 및 단체가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우리은행 등 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들이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음. 회원사들은 제조, 금융, 무역, IT 등 다양한 산업군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홍콩한인상공회는 광범위한 산업 네트워크를 보유하

고 있었음

❍ 홍콩한인상공회는 한국 기업의 홍콩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또한, 한국어 교육 및 문화 행사 지원, 홍콩 주요 언론 모니터링 및 뉴스 제공, 중국 주요 박람회 및 포럼 참가 지원 등의 활동도 하고 있었음. 특히, 홍콩 내 한인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인턴십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홍콩 취업을 돕고자 인턴십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음

❍ 홍콩한인상공회는 KOTRA, 한국관광공사, 홍콩무역발전국 등과 협력하여 한국과 홍콩 간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2003년 이후 한국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한국 기업들의 홍콩 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가로 인해 활동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2012년부터는 한국-홍콩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음









<홍콩한인상공회 방문>

□ **시사점**

○ 첫째, 홍콩한인상공회는 KOTRA, 한국관광공사, 홍콩무역발전국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한국과 홍콩 간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있음. 제주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해외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전략을 마련해야 함. 특히, 제주가 아시아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홍콩과 같은 글로벌 금융·무역 중심지와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홍콩한인상공회는 241개 회원사를 보유하며 제조, 금융, 무역, IT 등 다양한 산업군을 아우르고 있음. 제주 역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함. 특히,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IT,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국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홍콩한인상공회는 대학생 인턴십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인 청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제주는 관광 중심의 경제 구조를 벗어나 보다 다각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인재 육성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함. 특히, 제주 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해외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7. 홍콩해양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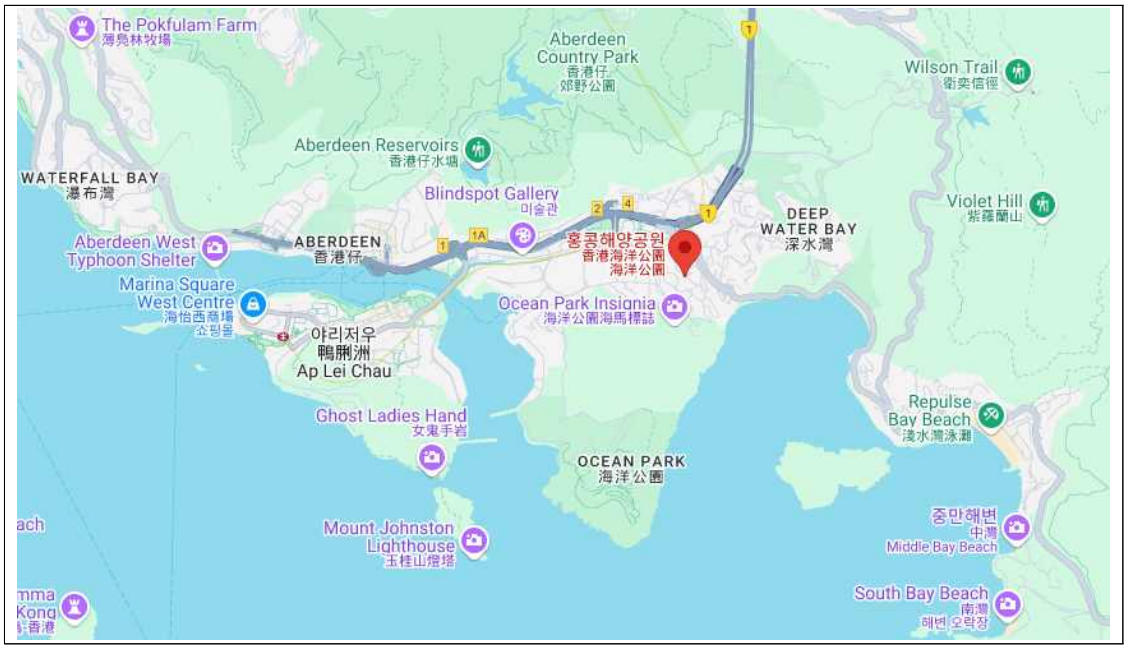
□ **개요**

○ 일시 : 2025년 1월 16일(목)

○ 참석자 : 연수단(13명)

○ 주소 : 180 Wong Chuk Hang Road, Aberdeen, Hong Kong

○ 위치 :



□ 내용

○ 홍콩해양공원(Ocean Park Hong Kong)은 1977년 개장한 홍콩의 대표적인 테마파크로, 해양 생물 전시와 다양한 놀이기구를 보유하고 있었음.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조성되었으며, 돌고래 쇼, 바다사자 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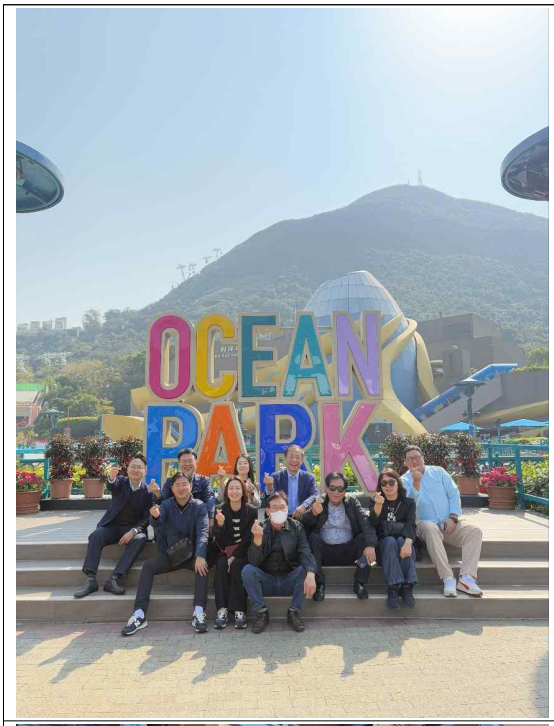
○ 1980년대 후반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갖추게 되었고, 자이언트 판다 서식지를 조성하여 멸종 위기 동물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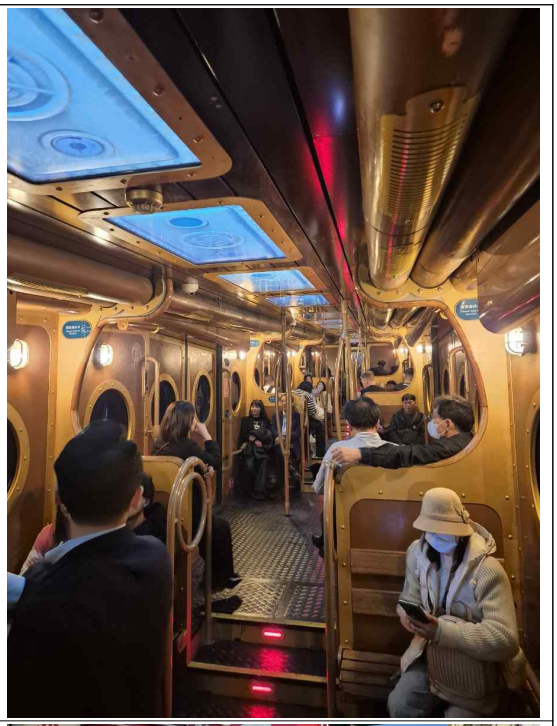
○ 홍콩해양공원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음. 해양 극장, 돌고래 라군, 바다사자 쇼 등이 있는 지역과 자이언트 판다 어드벤처, 멸종 위기 동물 테마관,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두 지역은 케이블카와 오션 익스프레스(Ocean Express)라는 해저 터널형 열차로 연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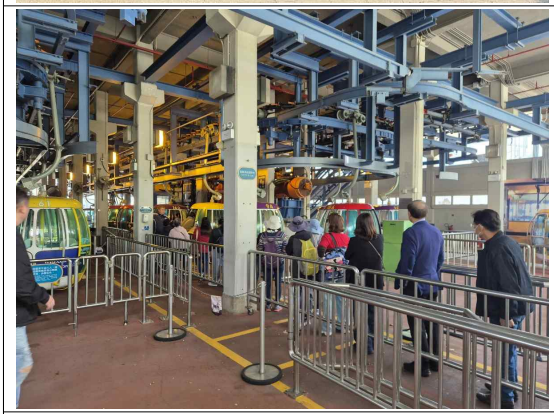
○ 케이블카로 연결되어 있으며, 케이블카를 통해 아름다운 홍콩의 자연 경관

을 감상할 수 있었음. 그 외에도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도 있었음

❍ 자이언트 판다 어드벤처(Giant Panda Adventure)는 홍콩에서 보기 드문 대형 포유류 보호 시설로 홍콩해양공원에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었음. 많은 관광객이 판다를 보기 위해 방문하고 있었음









<홍콩해양공원>

□ 시사점

○ 첫째, 홍콩해양공원은 해양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로, 산악지형과 해안경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음. 제주 역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가 다소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제주의 바다와 산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및 생태 기반 관광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홍콩해양공원은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해양 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기여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자이언트 판다 어드벤처 및 해양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교육과 보전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음. 제주 역시 자연환경 보호와 관광을 병행하는 생태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동식물 보호 프로그램을 연계한 생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홍콩해양공원은 홍콩의 대표적인 가족형 관광지로 자리 잡으며,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편임. 반면, 제주 관광은 자연경관 중심의 관광이 주를 이루며, 체류형 관광 및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브랜딩 전략이 다소 부족한 상황. 따라서, 자연경관 중심을 넘어 제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자연·문화·체험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함

8. 홍콩 교통/이동수단 체험

□ 개요

○ 일시 : 2025년 1월 16일(목)

○ 참석자 : 연수단(13명)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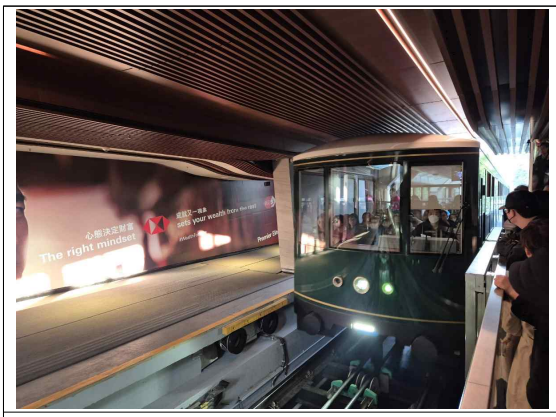
○ 홍콩 피크트램(Peak Tram)은 홍콩 섬의 센트럴 지역에서 빅토리아 피크

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로,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자 관광 명소임. 1888년 개통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케이블카 중 하나로 19세기 말, 빅토리아 피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건설되었음. 당시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피크트램은 최대 경사 27도의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림

❍ 피크트램은 약 1.4km 구간을 4~5분 동안 이동하며, 탑승객들은 트램이 오르내리는 동안 홍콩섬의 고층 건물과 빅토리아 항구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음

❍ 1989년과 2022년에 걸쳐 현대화 개조가 이루어졌으며, 최신형 트램 차량이 도입되어 수송 능력이 향상되었음. 피크트램의 종착역인 빅토리아 피크(Victoria Peak)는 홍콩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중 하나로, 낮에는 홍콩 도심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콩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함

❍ 피크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홍콩의 역사와 발전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빅토리아 피크 방문 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음





<피크트램>

❍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Mid-Levels Escalator)는 홍콩섬 중심부의 언덕을 따라 조성된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으로, 1993년 개통되어 도심과 미드레벨(Mid-Levels)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음

❍ 총 길이 약 800m, 고도 차이 135m에 이르는 이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은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평일 출근 시간대에는 하행으로, 그 외 시간에는 상행으로 운행됨. 이를 통해 홍콩의 가파른 지형 속에서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음

❍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영화 '중경삼림'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도심과 주요 관광지, 상업지구, 주거 지역을 연결하며, 이동 중 소호 거리, 할리우드 로드, 만모 사원 등 홍콩의 대표적인 명소를 감상할 수 있음

❍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도시 계획과 대중교통 시스템의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홍콩의 독특한 도시 구조와 생활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인식되고 있음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 홍콩 스타페리(Star Ferry)는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1888년 운항을 시작한 이래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홍콩의 상징적인 교통수단임. 빅토리아 하버(Victoria Harbour)를 가로지르는 짧은 항로를 운행하며, 저렴한 요금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애용하고 있었음

❍ 스타페리는 센트럴(Central), 완차이(Wan Chai), 침사추이(Tsim Sha Tsui) 등을 연결하며, 낮에는 빅토리아 하버의 웅장한 스카이라인을 감상

할 수 있고, 밤에는 홍콩의 대표적인 야경을 경험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자 관광 명소임

❍ 1950년대 이후 지하철과 자동차 터널이 개통되면서 해상 교통의 중요성이 줄어들었으나, 스타페리는 여전히 홍콩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자 홍콩의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음. 201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페리 여행 중 하나로 선정되며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음




<스타페리>

□ 시사점

❍ 첫째, 홍콩의 피크트램,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스타페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었음. 특히 피크트램은 빅토리아 피크라는 유명 관광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도심과 주요 관광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음. 반면, 제주는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관광객들이 렌터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제주는 관광 명소와 연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홍콩 스타페리는 빅토리아 하버를 오가는 해상교통수단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객들에게 이동과 동시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음. 반면,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해상 교통의 발전 가능성이 높지

만, 대중적인 해상 이동수단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제주도는 전기 페리, 친환경 셔틀버스, 공유형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도입을 통해 친환경 교통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관광 인프라와 연계할 필요가 있.

❍ 셋째,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출퇴근 시간에는 하행, 그 외 시간에는 상행으로 운영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제공되고 있었음. 또한, 스타페리와 피크트램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직관적인 노선 운영으로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었음. 반면, 제주도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복잡하고 배차 간격이 길어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관광객을 고려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져 이동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홍콩의 교통수단들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관광 자체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었음. 피크트램은 빅토리아 피크의 경관을 감상하는 핵심 요소이며, 스타페리는 빅토리아 하버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 반면, 제주의 대중교통은 관광 요소가 부족하고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제주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트램, 해안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친환경 관광버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야간 크루즈 등 이동 자체가 관광이 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Ⅴ 정책 제안

1.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 도모

❍ 마카오와 홍콩은 세계문화유산과 문화예술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있음. 특히, 마카오의 세인트 폴 성당 유적, 성 도미니크 성당, 세나도 광장과 홍콩의 서구룡 문화지구는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음

❍ 제주는 자연 중심의 관광지로 특화되어 있지만, 마카오 및 홍콩 사례처럼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한 관광 자원 확장이 필요함. 제주의 역사적 자산(제주목관아, 성읍민속마을, 돌문화공원 등)을 현대적인 문화·예술 콘텐츠와 결합하여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역사적 공간을 관광객 체류형 콘텐츠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미디어 파사드, 야간 문화공연, 역사 탐방 프로그램 등 체험형 관광 요소 강화
- 기존 문화재 보호와 함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제주형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개발

❍ 제주형 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필요

- 지역 예술가, 창작공간, 문화기관을 연계한 복합문화단지 조성
-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플랫폼 구축
- 문화예술 공간을 단순 전시 기능이 아닌 창작·체험·교육·관광이 결합된 복합형 공간으로 발전

2. 제주-홍콩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 홍콩한인상공회, KOTRA 홍콩지사,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제주 중소기업의 홍콩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제주형 수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홍콩은 여전히 아시아 주요 금융 및 무역 중심지이며, 제주산 농수산물, 화장품, 친환경 제품 등의 수출 거점 역할 가능
- 제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B2B 플랫폼 운영, KOTRA 및 현지 기관과 연계한 무역 상담회 개최

○ 홍콩과 제주 간 직항 항공 노선 활용도를 높여 MICE 관광, 의료 관광, 웰니스 관광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홍콩은 MICE 관광 및 인센티브 투어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제주 컨벤션 센터 및 특급 호텔과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 필요
- 홍콩-제주 의료 관광 연계를 위해 홍콩 내 병원 및 건강검진 센터와 협력, 웰니스 관광 패키지 개발

○ '제주-홍콩 경제포럼'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교류 플랫폼 구축 검토

- 제주와 홍콩 간 중소기업 협력 및 투자 연계 기회 확대
- 도내 스타트업 및 친환경 기업의 홍콩 투자 네트워크 연계 지원
-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제주와 홍콩 간 경제·관광·무역 협력 모델 발전 방향 논의

3. 제주형 친환경·해양 관광 콘텐츠 강화

○ 홍콩 해양공원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관광을 결합한 성공적인 모델로, 지속 가능한 관광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음. 제주는 천혜의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전략이 필요함.

○ 친환경 해양 관광 모델 도입을 위한 과제

- 홍콩 해양공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생태 보호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 구축
- 보호구역 내 탐방로 및 에코투어 프로그램 운영(예: 제한된 구역에서만 허용되는 스노클링·다이빙 체험)
- 생태 복원 및 서식지 보호 활동을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예: 관광객이 참여하는 산호 복원 체험 등)

❍ 제주의 특색을 반영한 친환경 해양 관광 콘텐츠 개발

- 해녀물질 체험과 해양 생태 교육을 결합한 ‘해녀 생태 탐방 투어’ 개발
- 해녀들이 수확한 해산물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해양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기·수소 기반 친환경 관광선 도입하여 탄소중립형 해양 투어 운영
- ‘해양 생태 탐방 루트’ 개발을 통해 특정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관광을 허용하는 생태 보호형 관광 모델 적용

4. 홍콩 야간관광 사례를 참고한 제주 관광 콘텐츠 다변화

❍ 홍콩은 야경 중심의 관광 콘텐츠(심포니 오브 라이트, 스타페리 야경 크루즈, 야시장 등)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고 있음

- 심포니 오브 라이트: 고층 빌딩을 활용한 세계적인 야경 쇼
- 스타페리 야경 크루즈: 홍콩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 야시장(템플 스트리트, 레이디스 마켓 등): 야간에도 활발한 상업·문화 공간 제공

❍ 제주는 야간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여 홍콩 사례를 참고한 맞춤형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성산일출봉, 용두암, 서귀포 칠십리 해안, 제주항 일대 등에 미디어 파사드 적용하여 야경 명소화
- 미디어아트 축제: 홍콩 심포니 오브 라이트와 같은 디지털 아트 기반 야경 쇼 개최
- 제주 전통문화 야간 공연: 해녀 공연, 전통 춤·음악을 활용한 야간 전통 공연 콘텐츠 개발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패키지 프로그램 도입(야간 관광 패스 운영)

- 지역 주민과 협력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 기획(야간 농촌 체험, 별빛 투어 등)

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홍콩을 롤모델로 삼아 왔으나, 최근 홍콩은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자치권과 자유를 상당 부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됨. 출장을 통해 현지에서 확인한 바, 공식적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하나, 이미 많은 기업과 인재가 해외로 이주한 것도 현실이었음.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함

- 홍콩은 과거 세계적인 금융·무역 허브로서 높은 자율성을 유지했으나, 2020년 중국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정책적 자율성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과 인재 유출이 가속화됨
- 이는 제주가 단순히 '자유와 개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정책 수립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
-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자치 모델 구축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현재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제한적이므로, 지방정부 차원의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 확대 필요. 세제, 환경, 관광, 산업 정책에서 독자적 권한을 확보하여 제주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일 광역자치체 구조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 및 분권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야 함
- 중앙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제주 내부에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함. 제주형 특별세 신설(예: 환경보전세, 관광개발부담금 등) 및 국세 일부 이양 방안 검토

○ 자치권 강화를 위한 연구 및 협력 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중앙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한 연구 및 법제화 과정을 추진
- 중앙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공론화 진행 및 제주형 자치 모델 설계

붙임 : 연수자 명단(13명)

구분	소 속	성 명
1	제주연구원 원장	양 덕 순
2	제주연구원 선임직 이사(前 제주대학교 총장)	송 석 언
3	제주연구원 선임직 이사(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 문 석
4	제주연구원 선임직 이사(前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이 창 익
5	제주연구원 선임직 이사(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 남 수
6	제주연구원 선임직이사(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현 미 열
7	제주연구원 선임직이사(前 서귀포시장)	현 을 생
8	제주연구원 선임직감사(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 윤 경
9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이 창 민
10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윤 원 수
11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명 상
12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고 채 환
13	제주연구원 행정직3급	서 정 임